

+ 김용규 · MBC+Media 방송기술2팀 조명감독



# 뉴미디어의 선두주자, **MBC + Media**

MBC ESPN 채널은 2003년 해외 진출 선수들의 활약에 힘입어 네덜란드 아인트호벤 경기(박지성, 이영표)와 이후 EPL(박지성, 이영표, 이종국, 설기현, 김두현)중계에 이르기까지 해외에서 수신되는 방송을 국내 시청자의 구미에 맞도록 재구성하여 수많은 마니아들의 탄생을 가져왔다. MBC GAME의 MSL 중계와, 프로리그중계, 국제게임대회의 주관방송, 중국과의 게임 방송제작 교류 등의 중계방송 노하우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 기술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타 채널의 시청률을 능가하는 중계방송은 한사람의 능력이 아닌 모든 기술 중계 스태프의 조화를 이룬 결과로 볼 수 있고 이는 MBC+Media의 힘이라 하겠다.



MBC플러스 미디어는 2001년 뉴미디어 탄생과 함께 설립 당시부터 미래의 기술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디지털 방송에 적합한 VCR과 비디오 서버를 조합한 하이브리드(Hybrid) 시스템을 통해 급변하게 될 방송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

당시 대부분의 케이블 채널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점과 비교해 분다면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도입은 출발부터 업계의 기술 발전에 기여하며, 2002년 위성방송(SkyLife) 시작과 함께 후발 PP업계에 좋은 모델이 되었다. 이러한 출발은 2005년 위성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인터넷 등 새로운 플랫폼 사업자의 등장에 맞춰 다채널 송출이 가능한 네트워크기술을 토대로 FULL서버 기반의 완전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폭 넓은 서비스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2007년 1월, 1년 여의 준비 과정을 거쳐 HD송출시스템과 HD콘텐츠 자체 제작을 위한 Full HD제작시스템을 완비하여 대학장사씨름대회, 유로2008, 연예인당구 대회, EPL, 한국프로야구 등 고품질의 HD콘텐츠 제작을 통해 시청자에게 한발 앞선 방송을 선보였다. 이는 MBC플러스 미디어의 위상을 한 차원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MBC플러스 미디어는 장애우를 위한 노력의 하나로 MBC DRAMA, MBC every1채널에서 Close Caption System(폐쇄자막방송)을 구축하여 해설자막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2012년 디지털 방송시대를 대비해 전 채널 HD방송 송출과 HD제작을 위해 주조정실, 부조정실, HD-NLE, 가편실, 수신실 등의 시설을 확충하였다. 또한, 디지털 방송 콘텐츠의 관리 및 재가공을 위한 디지털 방송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능률적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콘텐츠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계획을 추진해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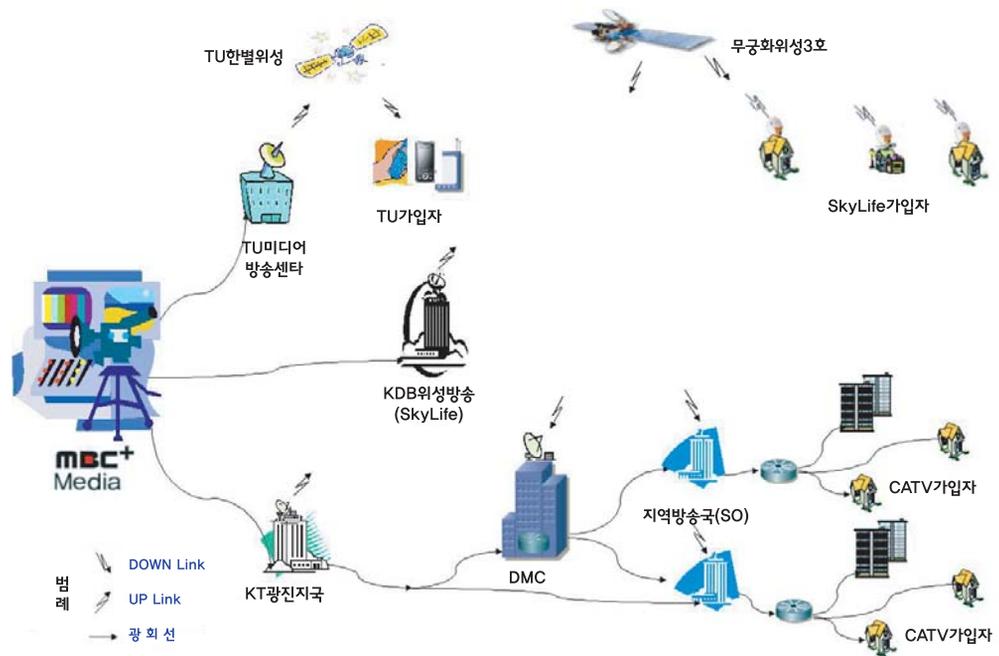
### MBC플러스 미디어의 방송시설

현재 MBC플러스 방송기술국은 1국 2팀의 형태로 송출 및 인제스트, 자료와 미디어를 관리하는 방송기술팀과 스튜디오 및 중계 제작, NLE를 담당하는 방송기술 2팀으로 나누어져 운영되고 있다.

방송기술 2팀은 방송제작기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제작시설 현황으로는 4개의 부조정실과 스튜디오가 있다. A부조정실과 히어로센터는 MBC GAME이 사용하고 있으며, B·D부조정실은 MBC ESPN이 사용하고 있다. D부조정실은 드라마넷이나 예브리원이 종종 사용하기도 한다.

MBC DRAMA, MBC every1, MBC ESPN, MBC GAME, HD MBCDRAMA, HD MBCESPN채널의 방송콘텐츠를 NO사업자를 통해 광회선과, 무궁화 위성3호를 이용한 위성 망을 통해 DMC와 지역방송사(SO), 위성방송(SkyLife)에 전송을 하고 있다. 또한, 뉴미디어인 위성DMB 서비스는 한별위성(일본 MBSAT)을 통해 시청 가능한 전용 단말기 가입자에게 MBC every1채널 방송과 TU스포츠채널에 MBC ESPN콘텐츠가 제공되고 있고, 한국DMB를 통해 MBC GAME, MBC every1 콘텐츠를 지상파DMB로 전송하고 방송되고 있다.

2009년에는 신규 HD채널 런칭과 확장을 통해 한발 더 나아가는 MBC플러스 미디어가 되기 위해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MBC+Media의 방송흐름도]

2001년 10월, 제1회 월드컵사이버게임즈(WCG)의 주관방송사로 국제 방송 신호를 제작 송출하는 업적을 남겼고, 2002년 여름을 뜨겁게 달군 월드컵중계방송은 지상파방송과는 차별화된 중계방식으로 MBC플러스 미디어의 힘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MBC ESPN 채널은 2003년 해외 진출 선수들의 활약에 힘입어 네덜란드 아인트호벤 경기(박지성, 이영표)와 이후 EPL(박지성, 이영표, 이동국, 설기현, 김두현)중계에 이르기까지 해외에서 수신되는 방송을 국내 시청자의 구미에 맞도록 재구성하여 수많은 마니아들의 탄생을 가져왔다.

MBC GAME의 MSL중계와, 프로리그중계, 국제게임대회의 주관방송, 중국과의 게임 방송제작 교류 등의 중계방송 노하우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 기술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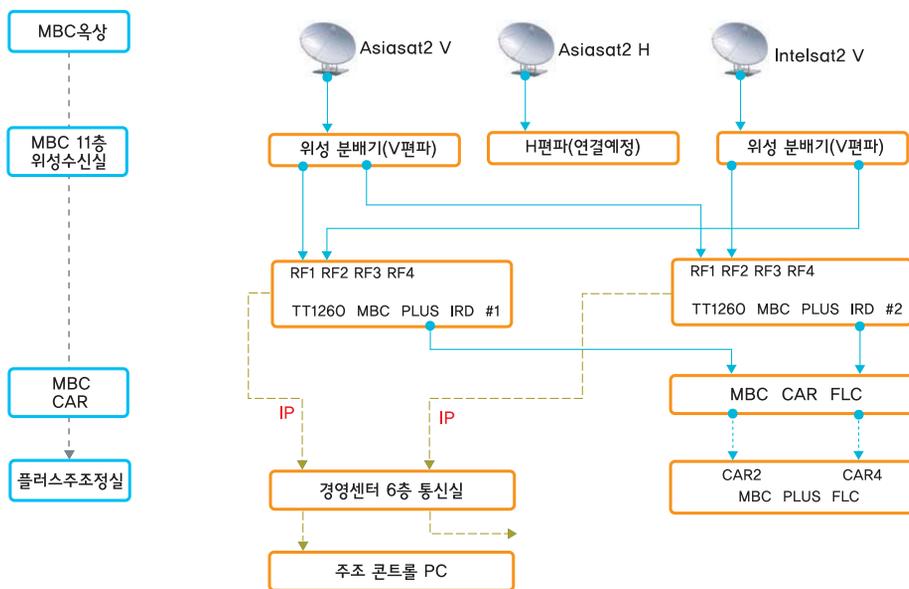
타 채널의 시청률을 증가하는 중계방송은 한사람의 능력이 아닌 모든 기술 중계 스태프의 조화가 이룬 결과로 볼 수 있고 이는 MBC플러스 미디어의 힘이라 하겠다.

### MBC플러스 미디어의 TVRO 구축

개국 이후, MBC ESPN에서는 해외 위성신호 사용시 ESPN, STAR SPORTS(ASIA SET3), ESPN1, ESPN2(PANAM SAT)에서 중계방송 하는 것 외에는 대부분 외부다운 링크 업체(KT-ITC 등)를 통해 수신하였고, 이는 많은 비용과 인력, 여러 단계의 절차가 필요한 구조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복잡한 업무절차, 수신비용, 수신 장애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MBC플러스 방송 기술국은 시스템 구성이 간단하고, 빠른 시간에 이용이 가능한 TVRO(Television receive-only) 시스템 구축을 계획했다.

중계를 위해 많은 해외 위성 FEED를 사용해본 결과, 방송에 필요한 대부분의 위성 신호가 ASIA SAT2와 INTEL SAT2를 이용하면 수신이 가능하다. MBC 위성 수신실의 협조 하에 MBC 본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ASIA SAT2와 INTEL SAT2 위성 안테나를 사내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주조정실의 노트북으로 매번 다른 위성 스펙의 신호를 제어하여 위성신호를 직접 수신 할 수 있었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TVRO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하게 되었다.

2008프랑스 오픈 테니스를 시작으로 유로2008, 아시아배구 챔피언리그, 세리아경기, UEFA슈퍼컵, 2008올림픽축구예선전 등 직접 수신을 통한 프로그램 제작과 송출 및 지상파방송, 타 PP에 경기 FEED를 안정적으로 분배함으로써 MBC플러스 미디어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었다.



[TVRO 시스템의 구성도]



### 미래 방송환경을 대비한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디지털 아카이브(Digital Archive)란 '갖가지 자료와 소장품·서류 등을 디지털 정보로 바꾸어 보관하는 일'이란 뜻이다.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축적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들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것이다.

방송사의 경우 테이프 매체로 저장되어 있는 방송 콘텐츠를 디지털 콘텐츠로 변환함으로써 다채널 다매체 환경에 적극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시스템이다. 하지만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투자되어야 한다. 당장 아날로그 자료들이 디지털화 되어야 하며, 기존의 콘텐츠에 대한 메타데이터들이 정리되어야 하고, 이것을 하나의 거대한 서버 혹은 각 부문별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야 한다. 또, 이렇게 구축된 디지털 자료를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되어야 한다.

이처럼 많은 노력과 자본 투자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카이브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 이유는 방송 콘텐츠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새로운 매체에 유연하게 서비스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송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MBC플러스 미디어 방송기술국은 2006년 7월, 기존 송출 아카이브 시스템 보완공사를 통해 송출 아카이브 이중화 작업을 마무리 지었으며, 2008년에 이미 본격적인 디지털 아카이브 도입의 타당성을 분석한데 이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이다.

우선,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1단계인 2009년에는 자료의 단순 저장에 필요한 아카이브 시스템을 마련하고, 2010년까지 2단계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작업을 통해 기존 송출실과 자료실의 저장 연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2011년까지 송출 시스템과 제작 환경 및 자료실의 저장 시스템을 갖춘으로써 완벽한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